보건사회연구 35(3), 2015, 005-04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http://dx.doi.org/10.15709/hswr.2015.35.3.5

한국인의 생활전망 잠재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불평등과 주관적 불평등의 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이 왕 원
(고려대학교)

김 문 조*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계급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한국 가구원들이 지닌 불평등 의식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규명하였다.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의 "1년 후 가구생활의 영역별 전망"에 잠재집단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적용해 "청년-희망상류층", "중년-하향중상층", "장년-상향중상층" 및 "중노년-절망하류층"이라는 네 개 잠재집단을 추출하였다. 이어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잠재집단 소속에 영향을 끼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해 생활 전망의 격차나 유형에 대해 객관적-물질적 요소보다 주관적 의식 요소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관적 예측요인들에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잠재집단 소속에 영향을 끼치는 주관적 의식 변인에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희망 불평등"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가구생활에 대한 전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객관적 불평등이 아니라 그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데, 그로부터 객관적 불평등의 내면화와 주관적 불평등의 표상화라는 교호작용의 산물인 가구생활에 관한 희망 격차가 한국사회의 계급적 골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주요용어: 한국사회, 불평등, 양극화, 계급의식, 생활전망, 잠재집단분석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4729)

* 교신저자: 김문조, 고려대학교(muncho@korea.ac.kr)

■ 투고일: 2015.4.30 ■ 수정일: 2015.7.13 ■ 게재확정일: 2015.7.22

Ⅰ. 문제제기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중산층 침하론을 동반한 양극화 담론이 도처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는 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적 차원에서 발원하는 경제적 불평등이 명품과 강남으로 표시되는 소비나 주거의 차원, 명문교나 학벌로 대변되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 의식체계나 가치관에까지 파급되어 사회를 분절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현상이라고 본다(김문조, 2008).

시대나 체제를 불문한 지구상의 어느 사회에서든 유효 자원의 분균등한 분포를 속성으로 하는 불평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계층질서의 양극화는 개방사회의 징표인 지위상승의 경로를 응축함으로써 계급적 분화나 단절을 조장한다. 그 결과 양적 불평등이 질적 불평등으로 전환되어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 방식의 격차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분절은 객관적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반영한 것으로, 불평등이나 빈곤에 대한 최근 연구들이 경제적 차원을 넘어 문화적 심리적 차원으로 관심의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전통적으로 사회 불평등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계층질서나 계급체계의 구조나 구조적 변화를 탐구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주관적·내면적 차원에 해당하는 계급의식에 관한 연구는 적었다. 있었다 해도 객관적 구조의 선행성, 우위성, 결정성을 강조한 것이 주류였고, 계급의식에 독자적 가치를 부여한 것은 희소했다. 하지만 근자에 들어서면서 사회 불평등의 주관적·의식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늘고 있다(김병조, 2000; 양춘, 2000; 신광영, 2006, 2013; 최효미, 2005; 이병훈, 윤정향, 2006; 금현섭, 백승주, 2011; 김문조, 2008, 2013).

객관적 불평등에 관한 주관적 해석이나 반응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목표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그것을 "희망 불평등"이라는 개념틀(conceptual scheme) 하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계급적 단절 상황은 객관적 계급 현실이 주관적 계급의식으로 내면화하고 그것이 계급적 행위를 통해 객관적 계급구조를 재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에 개입해 삶에 대한 희망에 영향을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해 희망 불평등의 유관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1년 후 가구생활의 전망"에 대한 가구원들의 응답에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해

내재적 잠재집단의 양상을 파악한 후, 그 영향요인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가구원들의 일상생활에 체현되어 가구생활에 대한 희망을 차등화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Ⅱ. 이론적 논의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불평등과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라고 본다. 유효자원의 불균등한 분포 상황을 뜻하는 불평등은 양적 과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연속성을 담지한 개념인 반면, 이원적 편중성을 함의하는 양극화는 양대 영역 간의 소통이나 교류를 억제하는 분절성이나 단절성을 지향하는 개념인 것이다(김문조, 2008). 뿐만 아니라 양극화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소비생활, 주거지, 교육, 문화, 인성 등으로 적용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불평등 현상과는 구별해야 할 쟁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구분과 경향을 같이하는 것이 사회적 불평등의 다원성·복합성·중층성을 강조하는 신빈곤론이다. 장세훈(2005)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노동빈곤, 경제성장의 감속으로 인한 중하층의 기회박탈이나 상승이동의 경로 단절로 인한 폐쇄형 계층구조의 고착화 등을 신빈곤론의 등장배경으로 제시한다. 불평등 현상을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적 프리즘을 통해 살펴본 정수남(2000, 2009)도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상시적 불안이나 공포에 시달리는 정신적 빈곤계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일본사회의 희망격차를 다룬 마사히로(2008) 역시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어 희망을 상실한 부류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상승이동의 의욕 감퇴로 표출되기도 하나, 중심과 주변 간의 장벽이 높다면 좌절과 절망으로 귀착될 경우가 많다. 특기할 만한 일은 최근 한국사회가 점차 후자와 같은 상황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Pierson, 2001; 박병현, 최선미, 2001; 구인회, 2002; 남은영, 2009). 빈곤연구가 Harrington(1997)은 일찍이 새로운 빈곤은 포부를 파괴하도록 구성되어 희망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김문조(2013)나 김찬호(2014)도 한국사회가 성장의 문턱(threshold of growth)을 넘어서면서 중하층에게 소득상승과 지위상승의 기회의 박탈해 의식적 빈곤

상태로 내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발전도상기의 한국사회를 특징짓던 상향이동에 대한 낙관적 기대 효과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빈곤론에서 간취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함의는 개인이 외적 불평등을 단순히 수동적,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신 능동적 주체로서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계급 정체성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계급정체성의 내화 과정에서 외적 불평등은 능동적으로 수용되고 해석되어 계급적 행위를 향도하는 주관적 의식을 발양하게 된다는 것이다(Jackman & Jackman, 1973, 1985; Lundberg & Kristenson, 2008).

주관적 계급의식은 한 사회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계급적 위치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다(Jackman & Jackman, 1973; 김병조, 2000). 이러한 판단 기준의 설정 과정에는 과거의 경험, 준거-비교집단, 직업지위, 소득 등이 복합적으로 개입되기에, 계급의식은 매우 가변적이고도 민감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측정의 모호성이나 한계가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하나, 개개인에게 소여된 주관적 계급의식이 신뢰성 높은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거듭 입증되어 왔다.

계층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객관적 계급상황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일치성 여부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일찍이 Vanneman과 Cannon(1987)은 양자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흑백 인종간 차이를 비교한 Jackman과 Jackman(1973)은 동일한 객관적 상황에서도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달리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계층상황과 계층의식 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이어져 왔으나, 중산층 붕괴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2007년 이후에는 중산층의 계층귀속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광민, 2009; 금현섭, 백승주, 2009).

사실상 이러한 인식은 계급의식이 계급구조에 의해 수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체험 및 투쟁을 통해 능동적으로 완성되어 감을 역설한 Thompson(1966)에 의해 일찍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생활체험이 구현되는 방식으로서의 계급의식은 구조적 위치로부터 단순히 연역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주체자의 경험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이데올로기적 요소 등이 개입된 결과임을 강조한 것으로(구해근, 1991, 2002; Crompton, 1998; 양춘, 1999), 계급의식이나 계급정체성을 일상생활의 집단적 경험과 정치, 교육, 문화 등의 영역에서의 상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급적 활동과 연관지어 이해하려는 과정적 접근(Argyle, 1994; Jackman & Jackman, 1973, 1985; Giddens, 1973; 안치민,

1992)의 이론적 근거를 이룬다.

요컨대,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계급의식은 단순히 자신의 계급적 위치의 파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계적 생활현실에 대한 고려와 이해관계의 프래임 하에서 구성되고 재구성된다는 것이 과정론적 관점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위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고도성장기에는 삶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팽배해 계급의식의 격차가 문제시되지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계급적 경계(class boundary)가 공고화되는 양극화 시대에 접어들어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절망계급이 늘어나면서, 주관적 박탈감이나 계급의식이 가구생활의 전망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대두할 개연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에 근거해, 이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의 객관적 차원의 불평등을 가구수준으로 측정하고 계층에 대한 주관적 의식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조작적으로 정의해 분석과정에 포함시켜, 객관적 불평등과 주관적 불평등이 어떠한 양식이나 절차를 통해 가구생활의 긍정적 전망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논구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Korean Welfare Pannel Study, 이하 KoWePS) 중 2011년에 실시한 7차 조사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KoWePS는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정부승인 일반통계로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의 규모, 실태 및 변화의 파악에 목표를 둔 학술적·정책적 활용성이 높은 자료이다. 조사모집단은 2005년 인구센서스 90%조사구(섬, 조사구는 제외)에 걸친 것으로, 2단계 추출 과정을 거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총 7,072가구의 원 가구 중 7차까지 조사된 표본은 5,271가구(이전 상실된 복원표본포함)로 표본유지율은 73.5%였다.

KoWePS는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및 연령별 경제/생활실태/복지욕구 등을 측정함으로써, 불평등 심화와 더불어 증대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복지욕구와 인식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특히 그것은 가구생활의 전망 및 계층의식, 주관적 최저/적정 소비등과 같이 개인의 주관/자존감/의식/만족도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관심사인 객관적 불평등과 주관적 불평등의 관계구도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연구대상

KoWePS 7차년도 목표모집단은 2011년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의 지표변수인 '가구의 1년 뒤 생활전망(이하, 생활전망)'과 더불어, 한국사회의 특성을 담지해내는 가구인적속성 차원, 가구형태차원, 가구경제차원, 가구의식차원의 변수들에서 결측이 없는(listwise) 총 4,745가구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결측값이 있는 표본을 제외하였다는 점에서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주된 결측이 소득관련 문항에서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모형상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또한 7차까지 조사가 유지된 5,217가구 중 약 90%인 4,745가구가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대표성 및 연구의 일반화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가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인인 가구 생활의 긍정적 전망과 더불어 여타 독립변인들이 가구수준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수준에서 측정된 인구, 성별, 학력, 기혼여부도 가구를 기준으로 평균화되었다. 가구단위를 분석단위로 설정한 것은 다음 두 가지 견지에서도 합당하다고 본다.

첫째, 최근 경제학계에서 소득불평등의 측정을 가구수준에서 측정·분석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균(2008)은 최근 소득격차의 연구경향이 가구단위 소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과거 안정적 소득을 책임졌던 가구주 고용상황의 악화, 배우자의 맞벌이 증가, 가구원 수와 단독·모자가구와 같은 가구구성의 변화, 전통적인 가구중심의 경제 활동 단위 등으로 한국사회의 소득의 결정단위로 가구가 적합하다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과도 부합된다(정의신, 김진욱, 2007; 반정호, 2008).

둘째, 본 연구의 핵심적 기제로 고려되고 있는 주관적 계층의식와 최저/적정 주관적 소비액이 가구단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관적 계층의식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와 배우자의 직업지위와 경제상황, 자산과 교육, 문화활동, 사회보험등 등이 고려되는데(장상수, 1996; 김병조, 2000; 조동기, 2006;

금현섭, 백승주, 2011), 이 같은 활동의 실천주체가 다름 아닌 가구이기 때문이다.

3. 변수 및 분석모형

가. 통제 및 영향 변수

본 연구에서 활용된 가구수준의 통제변인들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연령, 남성비율, 학력, 기혼자 비중, 지역과 같은 가구인구차원에서는 최근 노령화 및 지역 간 격차와 같은 인구사회적 변화가 가지는 여러 함의를 참고하여,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구성원들의 특성을 평균화(mean-centering)하였다. 이런 중에도 가구구성의 최근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자 가구원의 수, 단독(1인)가구 및 모자/부자/조손/소년소녀가장으로 구성되는 결손가구, 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중위 균등화소득 60%를 기준으로 한 저소득 가구를 고려하였다.

가구경제차원에서는 자가유무와 주택시세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주관적 계층의식 및 삶의 만족도에 주거형태, 특히 자가 유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선행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이병훈, 윤정향, 2006; 이병훈, 신재열, 2008). 다음 고려사항이 가구 소득유형으로, 이 연구에서는 근로, 사업 및 부업, 재산, 사적·공적이전, 기타소득이 고려되었다. 이는 가구구성의 변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직업지위 반영, 고령화 가구와 같은 세대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성균, 2008; 남상호, 권순현, 2008; 반정호, 2008; 김문조, 2008). 아울러 총소득대비 각 소득유형의 비중도 조사되었는데, 이는 비율변수이자, 변수의 합이 1이기 때문에 공변량이 통제되는 다항로짓회귀분석에서는 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해당 변수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에서만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생활비와 순재산도 고려되었다.

마지막 고려 사항이 가구의식차원의 변수로서, 여기서는 불평등에 대한 일종의 종합적 인지이자, 정체성의 기반인 주관적 계층의식이 일차적으로 고려되었고(Jackman & Jackman, 1973), 상대적 박탈감을 담지한 변수인 주관적 최저소비와 적정소비 변수도 고려되었다(Townsend, 1979). 이 모든 사항들은 아래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통제변수 및 잠재집단 지표변수의 정의

차원	변수 명	변수 정의 및 설명
가구인구차원	평균연령	가구구성원들의 연령평균=가구구성원 연령총합/가구원수
	남성비중	가구구성원 중 남성의 비율=남성가구원/가구원수
	평균학력	가구구성원들의 평균학력
	기혼자비중	가구구성원 중 기혼자의 비율=기혼자/가구원수
	거주지역(Dummy)	거주지역 1)서울 2)광역시 3)시(도농복합포함) 4)군
가구형태차원	가구원 수	현 가구에 거주중인 가구원의 수
	가구형태(Dummy)	가구형태 1)단독가구 2)모자/부자/조손가구/소녀소년가장가구 3)기타가구
	저소득가구 유무(Dummy)	중위 균등화 소득 60%기준에 따른 가구구분 0)일반가구 1)저소득가구
가구경제차원	자가유무(Dummy)	집의(등기상) 점유형태 0)전세/월세/기타 1)자가
	주택시세	거주하는 집의 가격(단위 10만원) =자가(주택가격), 전세(전세금), 보증부월세(보증금)
	[가구 소득유형] 근로소득	가구구성원 중, 상용 및 임시일용 근로자소득 합
	사업 및 부업소득	가구구성원 중, 고용주 및 자영자의 소득
	재산소득	가구구성원의 이자, 배당금, 임대료, 기타의 합
	사적이전소득	가구성원원의 민간보험/보조금, 가구원의 보조금의 합
	공적이전소득	사회보험/기초보장/기타 정부보조금의 합
	기타소득	증여/상속, 경조금, 보상금, 사보험금, 퇴직금/사회보험일시금, 보장성 보험해약금, 기타의 합
	총생활비	총생활비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공/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사적이전,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포함.
	순재산액	순재산액=총재산액-총부채액
	[가구 소득비중]* 근로소득 비중	가구총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근로소득/총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비중	가구총소득 중, 사업 및 부업소득의 비중 =사업 및 부업소득/총소득·
	재산소득 비중	가구총소득 중, 재산소득의 비중=재산소득/총소득

차원	변수 명	변수 정의 및 설명
	사적이전소득 비중	가구총소득 중,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사적이전소득/총소득
	공적이전소득 비중	가구총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공적이전소득/총소득
	기타소득 비중	가구총소득 중, 기타소득의 비중=기타소득/총소득
가구의식차원	주관적 최저소비	"가구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
	주관적 적정소비	"가구가 1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적정생활비"
	주관적 계층의식	"우리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댁의 가구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하(류)층, 2)중하층 3)중간층 4)중상층 5)상(류)층
	[가구원 평균만족도] 1.건강	가구구성원들의 건강만족도 평균값 =가구구성원(개인수준)만족도의 합/가구원의 수
	2.가족수입	가구구성원들의 가족수입만족도 평균값
	3.주거환경	가구구성원들의 주거환경만족도 평균값
	4.가족관계	가구구성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 평균값
	5.직업	가구구성원들의 직업 만족도 평균값
	6.사회적 친분관계	가구구성원들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평균값
	7.여가문화	가구구성원들의 여가생활 만족도 평균값

* 총소득 중 각 소득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가구소득비중 변수는 비율 변수의 특성상(모든 소득유형 변수 총합 시=1) 이후의 다항로짓회귀분석에서 중복추정의 문제 및 해석의 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변수는 잠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원배치분산분석에(ANOVA)에서만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나. 잠재집단 지표변수

본 연구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10개의 지표(indicators) 변수들에 숨어있는 이질적 분포, 즉 최적의 잠재집단(Latent Class) 수를 색출하는 작업으로부터 본격화된다. 해당 1년 후의 가구 생활의 전망의 세부 지표변수들은 생계, 의료(건강), 주거, 보육, 교육, 취업(일자리), 교통/통신, 여가/문화생활, 돌봄, 부채 및 이자상환으로 구성된다. 실제 조사에서 이들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1년 후 "(4)약간 나아질 것이다", "(5)많이 나아질 것이다"를 '1'로 코딩, 나머지는 '0'으로 코딩하여 가변수화(dummy variable)하였다. 따라서 해당문항은 가구생활의 10개 영역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가진 가구'와, '가지지 못한 가구'로 양분해 고찰된다. 이 같이 연속형 변수를 범주화하는 것이 정보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연구진은 해당

문항이 '1년 후'의 전망을 묻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세분화된 응답을 요하는 5점 척도를 2점 척도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2. 잠재유형 지표변인 측정 및 설명

측정문항(변수)	측정 영역	변수 정의 및 설명
(다음 각 영역에서) 귀댁의 생활과 관련하여 현재와 비교하여 1년 후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계	원 문항은 생활 전반 10개 영역에 대한 1년 후 전망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 많이 나빠질 것이다. 2. 약간 나빠질 것이다. 3. 비슷할 것이다. 4. 약간 나아질 것이다. 5. 많이 나아질 것이다. 본 문항은 1~3을 '0'으로, 4~5를 '1'로 재코딩하였으며, 따라서 본 문항은 생활 각 영역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소유 여부를 측정한다.
	의료(건강)	
	주거	
	보육	
	교육	
	취업(일자리)	
	교통/통신	
	여가, 문화생활수준	
	돌봄(노인/장애인수발)	
	부채 및 이자상환	

4. 분석방법

첫 단계로 가구생활 긍정적 전망의 잠재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잠재집단분석(LCA)을 실시한다. 잠재집단분석은 한 집단내의 관측된 분포가 두 개 이상의 이질적 기저분포로 혼합·구성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최적의 잠재집단을 탐색해내는 기법이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으로 대표되는 통상적인 잠재변수분석(latent variables modeling)은 동질적인 모집단을 가정한 채 지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피면서 그들의 집락화를 시도하는 변수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이다. 반면 잠재집단분석은 관측되지 않는 모집단의 분포, 즉 모집단 내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이질적 혼합분포를 가정하고 그 양상을 탐색하는 사람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이다(Nagin, 1995, 2005; Muthen, 2001, 2002). 이와 유사한 사람중심접근 방법으로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잠재집단분석은 군집분석에 비해 통계모델에 근거한 모델 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집단 소속여부에 대한 적합도 지수의 산정과 유의도 검증을 행할 수 있다는 점, 변수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결과로 산출된 집단의 소속여부로 이항 및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에 유용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여러 장점들을 함유한다(Collins & Lanza, 2010).

통계적인 차원에서 잠재집단 내의 변량은 최소화하되 잠재집단 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최적의 모집단 혼합분포를 색출하는 것이 잠재집단분석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잠재집단분석의 수식(notation)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P(Y_i = y_i) = \sum_{l-1}^{L} \gamma_l \prod_{m=1}^{M} \prod_{k=1}^{r_m} \rho_{mk|l}^{I(y_{im}=k)}$$

기본적으로 잠재집단분석은 $P(Y_i = y_i)$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여기서 y_i는 i번째 개인에 대한 M개 문항의 벡터이다. 본 분석에서는 두 개의 모수(parameters)가 고려되는데, 잠재계층이 주어졌을 때(conditionally), 어떠한 응답패턴을 지닐지를 살피는 문항반응확률(item response probability)를 추정하는 ρ와 모집단에서 l번째 집단의 소속확률(membership)의 한계비율(marginal rate), 즉 잠재집단의 비중(prevalence)을 의미하는 γ이다. 만약 최적의 잠재집단 l(l=1, ... , C)의 개수를 알고 있다면, EM알고리즘을 통해 두 모수의 로그우도가 최대화되는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잠재집단의 수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진은 잠재집단의 수를 순차적으로 증가시켜가면서 두 모수의 값을 최대화하는 최적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가구생활 10개 영역에 대한 전망 지표변인들을 토대로 잠재집단의 수를 순차적으로 늘려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때, 최적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Ake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ABIC(Adjusted BIC) 정보적합도 지수를 고려된다. 해당 정보적합도 지수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모수를 활용하여 높은 로그 우도수치를 만들어내는 모형을 선호한다.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투입된 잠재집단 유형수(k)가 최적의 값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LMR-L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A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실시한다. 이는 k개 잠재집단 유형의 모형(H1)과 그보다 잠재집단유형 수가 하나 적은(k-1) 모형(H0)을 비교해 모델적합도 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최적의 잠재집단의 수는 집단 수의 순차적 증가에 따라 상기 지수들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비교, 평가하여 결정한다. AIC와 BIC, ABIC지수는 작은 값을 가질수록 모형

적합도가 좋은 것을 뜻하며, LRT와 ALRT, BLRT검정은 그 값이 유의미할 때, k-1 유형보다 k개의 잠재집단 유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잠재집단의 수를 확정한 후에는, 각 개별사례들이 얼마나 정확히 집단에 분류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엔트로피(Entropy) 지수를 확인한다. 엔트로피 지수는 0에서 1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정확히 분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연이어,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식별된 집단들을 대상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해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집단 소속에 대해 가구수준의 독립 및 통제변인들이 어떤 영향(소속확률)을 지니는지를 다항로지스틱 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확인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표 3>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기술통계에서 주목할 사항은 소득유형과 소득분포의 음수 값에 대한 해석이다. 먼저 가구 소득유형에서 사업 및 부업소득은 자영업에서의 손실을 의미하며, 순자산도 총재산과 총부채의 차감인 바 음수 값은 부채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가구소득비중은 총소득에 대한 각 소득의 비중으로 원칙 상 0~1의 범위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사업 및 부업소득의 음수 값(적자)이 총소득 값에 영향을 미쳐 0~1의 범위를 넘는 결과들이 약 5~10 사례 정도 도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사례는 최소값으로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앞의 변수측정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가구소득비중 변수는 잠재집단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에만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표 3. 기술통계

차원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구인적차원	가구 평균연령	4945	13	93	49.25	19.72
	가구 남성비중	4945	0	1	.44	.27
	가구 평균학력	4945	2.00	9.00	4.28	1.30
	가구 기혼자비중	4945	0	1	.73	.28
	[거주지역]					
	서울	4945	.00	1.00	.17	.38
	광역시	4945	.00	1.00	.26	.44
	시(복합도농군포함)	4945	.00	1.00	.37	.48
	군	4945	.00	1.00	.19	.40
가구형태차원	가구원 수	4945	1	9	2.66	1.30
	[가구형태]					
	단독가구	4945	.00	1.00	.21	.41
	결손가구	4945	.00	1.00	.02	.14
	기타가구	4945	.00	1.00	.77	.42
	저소득가구 유무	4945	0	1	.33	.47
가구경제차원	자가유무	4945	0	1	.64	.48
	주택시세	4945	20	700000	12121.27	19173.35
	[가구 소득유형]					
	근로소득	4945	.00	1083.38	75.32	96.22
	사업 및 부업소득	4945	-254.60	4788.00	52.34	154.38
	재산소득	4945	.00	1441.60	16.71	55.00
	사적이전소득	4945	.00	1032.20	33.88	54.13
	공적이전소득	4945	.00	772.80	34.35	59.53
	기타소득	4945	.00	5500.00	24.72	129.31
	총생활비	4945	2.00	203.10	28.25	21.11
	순자산	4945	-6885.00	77166.00	2305.20	3832.49
	[가구 소득비중]					
	근로소득 비중	4945	-8.67	1.49	.34	.38
	사업 및 부업소득 비중	4945	-4.37	25.59	.16	.51
	재산소득 비중	4945	-.74	1.00	.06	.14
	사적이전소득 비중	4945	-14.37	4.19	.19	.33
	공적이전소득 비중	4945	-1.48	1.25	.20	.26
	기타소득 비중	4945	-9.92	.95	.05	.20
가구의식차원	주관 최저소비	4945	15	1500	187.57	134.49
	주관 적정소비	4945	25	2500	267.83	177.76
	주관적 계층의식	4945	1	5	2.06	.85
	[가구원 평균만족도]					
	1.건강	4945	1	5	3.19	.92
	2.가족수입	4945	1	5	2.71	.83
	3.주거환경	4945	1	5	3.51	.75
	4.가족관계	4945	1	5	3.83	.67
	5.직업	4945	1	5	3.32	.72
	6.사회적 친분관계	4945	1	5	3.72	.57
	7.여가문화	4945	1	5	3.13	.76
	유효표본(n)	4945				

2. 최적 잠재유형의 결정

<표 4>는 가구생활 긍정적 전망에 대한 LCA모형 결정을 위한 관련 통계치들을 각 잠재집단의 개수 별로 정리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정보적합도 지수인 AIC와 BIC, ABIC 모두 모델의 순차적 투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정보적합도 지수들의 값이 적어질수록 모델 적합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수들만으로는 유의미한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할 수 없다. 하지만 잠재집단의 수가 3개를 넘은 뒤부터는 해당 지수들의 감소폭의 차이가 매우 적게 나타난다.

따라서 k-1개의 잠재집단 모형(H0)과 비교하여 k개의 잠재집단 모형(H1)의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LRT와 ALRT 두 결과에서는 잠재집단의 수가 5개 시점부터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모형의 집단 분류정확도를 살피는 Entropy지수도 4개 잠재변인일 때 .763으로 3개 잠재집단 모형보다 우수하였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개 잠재집단의 경우 큰 패턴의 겹침이나 역전이 보이지 않고, 단순히 전망의 정도만을 가른다는 점에서 잠재집단분석 사용의 효용성을 감소시킨다. 반면 4개 잠재집단의 경우에는 주거, 교육, 보육과 교통과 여가, 돌봄에서 유형3과 유형4의 독특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4개의 잠재집단을 가정한 모형이 한국사회의 가구생활 전망을 가장 의미 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최종 분석모형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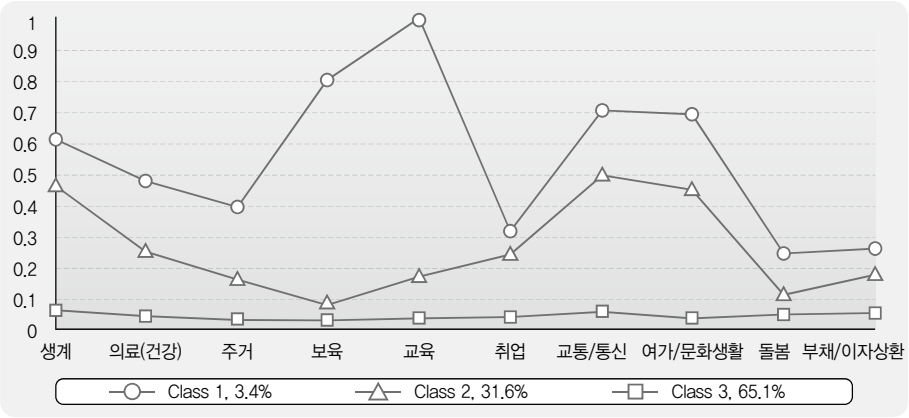
표 4. 가구생활 긍정적 전망에 대한 LCA모형 결정을 위한 적합도 통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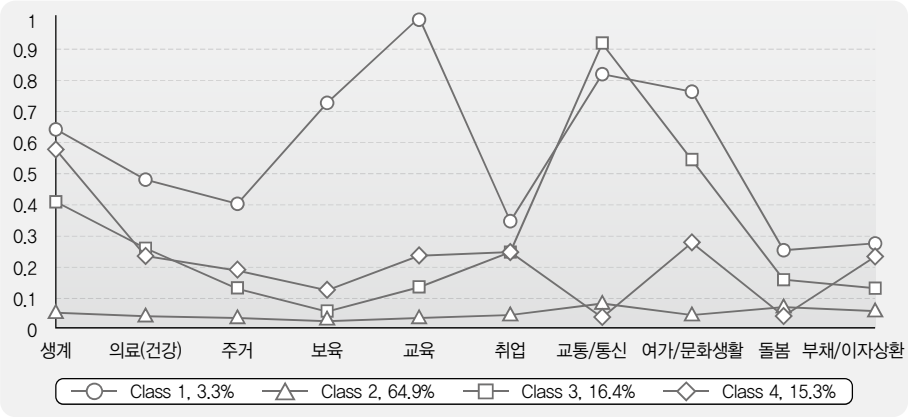
집단	AIC	BIC	ABIC	LRT (p-value)	ALRT (p-value)	BLRT (p-value)	Entropy	집단별비율				
								1	2	3	4	5
1	41186.161	41252.685	41220.908	-	-	-	-	100				
2	37852.915	37992.616	37925.885	3355.246 (.000)	3320.359 (.000)	3355.246 (.000)	.709	28.6	71.3			
3	37558.371	37771.248	37669.562	316.545 (.000)	313.253 (.000)	316.545 (.000)	.751	3.1	27.3	69.5		
4	37373.897	37659.952	37523.310	206.473 (.0037)	204.326 (.0039)	206.473 (.000)	.763	3.1	69.0	15.3	12.5	
5	37279.284	37638.575	37466.919	116.614 (.246)	115.401 (.248)	116.614 (.000)	.739	2.9	69.4	4.3	14.6	8.8

*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LMR-LRT(Vuoung-Lo-Mendell Rubin Likelihood Ratio Test), A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그림 1]은 잠재집단 3개 유형과 4개 유형의 추정된 모델의 확률분포를 보여준다. 해당 그림에서는 3유형 모형 중, 31.4%를 차지하였던 중간분포집단인 유형2가 4유형 모형에서 유형3과 유형4로 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간집단의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4개 유형의 모형을 지표변인에 준거해 풀이해 보도록 하자. 먼저 유형2는 집단의 약 65%를 차지하며, 가구생활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전망을 거의 꿈꾸지 못하는 '절망'집단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유형1은 3.3%만 존재하는 소수 집단으로 가구생활 모든 영역, 특히 보육과 교육, 여가에서 나아질 것을 예상하는 '희망' 집단으로 보인다. 다음 각각 15% 정도의 분포를 차지하는 유형3과 4는 생계 면에서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의료, 주거, 보육, 교육, 취업 등 상승이동을 위한 여타 영역에서 다소 불안을 느끼는 '불안'집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는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2와 비교해볼 때, 사회의 중산층, 혹은 중상 계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흥미있는 점은 유형3, 4집단이 교통과 통신, 여가와 문화생활의 전망에서 크게 변별된다는 점이다. 즉, 유형3은 교통 및 통신 영역에서 유형1을 넘어서는 긍정적 전망을 보인다. 반면 유형4는 교통 및 통신에서는 유형2보다 못한 전망을 보이나, 생계는 유형1에 가까운 긍정적 전망과 함께 주거, 교육, 보육 차원에서도 유형4보다 높은 전망을 보이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림 1. (생활전망 각 영역에 대한) 잠재집단 유형 그래프(위-3유형, 아래-4유형)





3. ANOVA를 통한 잠재집단 유형화 및 특성

이상의 잠재집단분석은 가구생활 전망치만을 근거로 잠재집단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전망의 기저를 이루는 사회-가구적 특성들을 살필 수 없었다. 그러나 전망과 같은 의식 차원의 변인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ANOVA분석을 통해 가구의 인구학적, 경제적, 주관적 차원들을 고려한 확장된 분석을 시도한다.

<표 5-1>은 ANOVA분석을 통해 잠재집단에 따라 가구인적, 가구형태, 가구경제, 가구의식차원 변수들의 분포와 차이를 요약한 것이다. 이 때 주목을 요하는 점은 가구 생활 전망이라는 것에 기초해 분류된 잠재집단에 따라 객관적 차원의 변수들도 큰 집단 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생활 전망이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물질세계와의 상응 하에서 생성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Duncan 사후검정을 활용해 집단 간 차이의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기 <표 5-1>는 잠재집단 유형별로 변수들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결과를 직접 살피는 것 보다는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일정한 위계를 지닌다는 점에 착안해 <표 5-2>에 변수들의 집단 평균값을 오름차순으로 재정리하였다. 즉, <표 5-2>에서는 잠재집단별이 아닌 개별 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ANOVA분석 결과를 표시하였으며, 잠재집단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색깔별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잠재집단 별 ANOVA분석(표 5-1)을 간략히 제시하나 명료한 전달이 어려운 바, 이후 각 변수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정렬된 ANOVA분석(표 5-2)을 중심으로 각 잠재집단의 특성을 상세히 살펴본다.

표 5-1. 잠재집단 별 ANOVA분석결과(잠재집단 유형 기준)

종속변수		잠재집단 유형				F-value (sig)
차원	변수	유형1 [청년-희망상류층]	유형2 [노년-절망하류층]	유형3 [중년-하향중상층]	유형4 [장년-상향중상층]	
가구인적차원	가구 평균연령	30.81a	53.28d	45.73c	37.64b	201.239***
	가구 남성비중	.47bc	.43a	.45ab	.46ab	3.649*
	가구 평균학력	4.42b	4.12a	4.57b	4.74c	60.546***
	가구 기혼자비중	.59a	.77c	.69b	.62a	81.323***
	[거주지역]					
	서울	.19ab	.16a	.17a	.24b	7.381***
	광역시	.35c	.25a	.32bc	.27ab	7.338***
	시(복합도농군포함)	.38	.37	.36	.36	.067
	군	.08a	.22c	.15b	.13ab	21.130***
가구형태차원	가구원 수	3.56d	2.48a	2.83b	3.13c	86.775***
	가구형태_단독가구	.06a	.25c	.15b	.13b	32.422***
	가구형태_결손가구	.02	.02	.02	.02	.068
	가구형태_기타가구	.92c	.73a	.83b	.84b	29.722***
	저소득가구 유무	.12a	.40c	.23b	.14a	85.688***
가구경제차원	자가유무	.58a	.66b	.65b	.55a	9.623***
	주택시세	13968.29	11698.18	12681.95	13129.16	1.893

종속변수		잠재집단 유형				F-value (sig)
차원	변수	유형1[청년-희망상류층]	유형2[노년-절망하류층]	유형3[중년-하향중상층]	유형4[장년-상향중상층]	
	[가구 소득유형]					
	근로소득	110.54c	61.94a	95.10b	110.83c	72.686***
	사업 및 부업소득	59.94	48.77	50.82	70.64	3.796**
	재산소득	14.25	17.04	15.98	16.59	.201
	사적이전소득	26.81a	35.42c	32.60ab	29.36ab	3.527*
	공적이전소득	20.87a	36.53b	35.44b	25.33a	9.500***
	기타소득	42.79b	22.21a	22.15a	35.98ab	3.276*
	총생활비	40.02d	25.33a	31.69b	36.02c	78.862***
	순자산	2500.73	2248.18	2456.16	2362.97	.853
	[가구 소득비중]					
	임금소득 비중	.48c	.29a	.41b	.48c	68.362***
	사업 및 부업소득 비중	.17	.16	.16	.16	.072
	재산소득 비중	.04ab	.06b	.05ab	.05ab	3.806**
	사적이전소득 비중	.12a	.22b	.16a	.13a	19.593***
	공적이전소득 비중	.10a	.22b	.17b	.12a	43.614***
	기타소득 비중	.09b	.05ab	.05ab	.07bc	4.983**
가구의식차원	주관 최저소비	25.91d	16.79a	21.49b	23.65c	83.139***
	주관 적정소비	34.95c	24.26a	29.64b	34.13c	81.916***
	주관적 계층의식	2.50c	1.96a	2.25b	2.23b	51.495***
	[가구원 평균만족도]					
	1.건강	3.83c	3.01a	3.52b	3.54b	146.109***
	2.가족수입	3.02c	2.63a	2.85b	2.83b	30.648***
	3.주거환경	3.60c	3.49a	3.59ab	3.52ab	4.582**
	4.가족관계	4.04c	3.78a	3.91b	3.96b	24.285***
	5.직업	3.55c	3.26a	3.41b	3.46bc	25.740***
	6.사회적 친분관계	3.81b	3.68a	3.77b	3.83b	17.876***
	7.여가문화	3.36c	3.08a	3.20b	3.19b	12.462***
	잠재유형 별 표본수					

† $P<.1$, *$P<.05$, **$P<.01$, ***$P<.001$

* 각 잠재유형 평균값 옆에 기재된 첨자(abc)는 Duncan사후검정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하위 집단을 알려준다.

** 소득/생활비/자산의 단위는 십 만원임

잠재집단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주요 인구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잠재집단들을 비교해보도록 하자. 우선 [유형1] 가구의 인구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 평균연령이 31세로 여타 집단들보다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남성비중은 .47로 다른 집단들보다 가장 높은 편이며, 거주지역은 광역시, 시를 중심으로 주로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형태차원에서는 3.6명으로 가장 많은 가구원수를 지녔으며, 가구형태 또한 안정되어 있었다. 가구의 경제적 차원에서는 자가의 소유비율은 낮았으나, 주택시세는 가장 높았다. 소득의 형태는 근로, 사업 및 부업소득이 타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며, 가구 총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주관적 차원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주관적 최저/적정 소비액도 가장 높았으며, 가구원의 생활 만족도 전반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상기 결과를 통해 [유형1] 집단을 총괄적으로 진단한다면, 이들은 수도권이나 주요 광역시에서 상류 아파트의 소유를 준비하면서 세 들어 사는 젊은 중상류 가구로 보인다. 다소 특이한 점은 평균 3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구 평균학력이 낮다는 점이지만, 이는 취학 아동 및 학생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학력수준의 평균값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3.56명의 가구원의 수와 안정된 가구형태도 '젊은 부모와 취학 자녀'라는 정상 가구일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또한 높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은 가구주의 직업이 안정된 대기업에 속할 가능성을 방증한다.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기타소득이 가장 높은 것은 상속 및 증여의 형태로 부의 세습이전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집단의 주관적 계층의식도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만족도 및 주관적 소비액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아 고급-기호적 소비를 즐길 것으로 보인다. 또 앞서 언급한 생활 전망 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1] 집단은 '청년-희망상류층'으로 규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모든 영역에서 생활 전망이 낮은 [유형2]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자. 가구의 인적 특성 면에서 평균연령이 53세로 가장 높으나, 남성비중이 낮고 평균학력이 가장 낮다. 또 기혼자 비중은 77%로 가장 높았고, 거주지는 농/어촌 군 지역에 쏠려 있다. 가구형태차원에서 가구원의 수는 2.5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단독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주로 정상 가구를 의미하는 기타가구도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균등화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한 저소득 가구 유무에서는 40%로 나타나 경제적 박탈의 위험선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의 경제차원에서는 먼저 자가 유무 비율이 높았으나, 주택시세는 가장 낮았다. 이는 농어촌의 군지역의 집값 시세가 전반적으로 낮음에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 소득 유형과 형태에서는 재산소득 및 공·사적 이전소득이 가구의 주 소득원이었다. 가구 주관적 차원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 및 주관적 소비, 삶의 만족도 모두가 가장 낮아

물질-정신 양면으로의 박탈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특징들로 [유형2] 집단을 유추해본다면, 해당 집단은 경제적 능력을 박탈당하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가구일 확률이 높다. 즉 높은 연령과 적은 가구원 수, 평균학력이 낮은 것은 가구세대의 분가를 함의한다. 더구나 최근 도농을 기준으로 연령세대의 분포가 명확히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해당집단의 거주지역이 농/어촌 위주인 것도 이해감직하다. 소득 형태에서도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주로 공적/사적이전소득에 의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생애기간 동안 누적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주 소득원이었다. 하지만 추가적 확인 결과, 재산소득은 편포도가 다른 소득에 비해 심했다. 이는 고령세대의 소득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김문조, 2008; 남상호, 권순현, 2008). 주관적 차원에서도 낮은 생활 전망과 더불어 가장 낮은 주관적 계층인지, 만족도와 소비욕구의 저하 등을 확인되어, 물질과 의식 양자의 복합적 박탈 상황을 연상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집단은 전체 집단 중 대다수인 6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인데, 이 [유형2] 집단을 일단 '노년-절망 하류층'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중상층 전망을 지닌 [유형3]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유형3] 가구의 평균연령은 46세로 중년세대이며, 학력은 낮은 편에 속한다. 주거지는 도농에 걸쳐 골고루 산포된 경향을 보인다. 가구형태차원에서는 가구원의 수가 2.8명으로 다소 적은 편이며, 단독 및 결손가구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경제차원에서는 근로, 사업소득은 낮은 편이며, 공·사적이전이 비중이 높아 연령을 고려하면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로 보인다. 주관적 차원의 변인들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유형3] 집단의 정의한다면, '중년-하향중상층'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연령상의 분포로 노동세계에서의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자녀세대의 분가를 준비하거나, 갓 이뤄낸 베이비붐 세대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은 편이지만 [유형2]와는 구별되는 계층적 속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지난날에는 엄연한 중상층이었지만, 고령화와 더불어 은퇴를 준비하며 사회활동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하향적 계층이라 말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은 앞서 잠재집단 분석결과 비슷한 긍정적 전망을 지닌 [유형4] 집단과 교통과 통신, 여가 면에서 크게 변별된다는 점이다. 요컨대, 스마트폰이 중년층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중년-하향중상층'에게도 소정의 신기술 효과가 구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잠재집단 분석결과 또 다른 중상층 전망을 지닌 [유형4]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논의에 앞서 긍정적 전망과 사회경제적 변인이 유사한 수준을 지닌 [유형4]와 [유형3] 집단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변수는 연령이다. [유형4]의 평균연령은 38세로 이들은 현재 노동-직업세계의 핵심적 계층이다. 이들의 학력은 여타 가구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집단이며, 서울 거주비율도 가장 높다. 가구원의수도 3.13명으로 안정적이다. 주택 자가보유율은 가장 낮으나, 주택시세는 높은 편이다. 경제적 차원에서도 근로, 사업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이며, 재산소득과 기타소득 또한 높은 집단으로 재태크와 같은 활동도 예상할 수 있다. 주관적 차원에서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거주로 인해 주관적 소비수준은 높은 편으로, 서울이라는 지역에 통용되는 높은 사회경제적 기준이 해당 집단의 높은 소득과 학력에 불구하고 주관적 계층의식과 만족도를 낮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Jackman과 Jackman(1973)의 주장, 주관적 계층의식은 상대적 비교를 통해 형성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사례로 보인다. 요컨대, [유형4] 집단은 '장년-상향 중상층'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들은 현 한국사회 계층체계의 핵심 중산층으로 높은 학력과 서울 거주, 안정된 고용환경 등을 통해 사회적 지탱이 용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생애주기적 관점에서는 '중년-하향중상층' [유형3]의 선행 집단으로 간주된다.

표 5-2. 잠재집단 별 ANOVA분석결과(개별 변수값 평균 기준)

종속변수		각 변수 평균값(오름차순)				F-value (sig)
차원	변수	하	중하	중상	상	
가구인적차원	가구 평균연령	30.81a	37.64b	45.73c	53.28d	201.239***
	가구 남성비중	.43a	.45ab	.46ab	.47bc	3.649*
	가구 평균학력	4.12a	4.42b	4.57b	4.74c	60.546***
	가구 기혼자비중	.59a	.62a	.69b	.77c	81.323***
	[거주지역]					
	서울	.16a	.17a	.19ab	.24b	7.381***
	광역시	.25a	.27ab	.32bc	.35c	7.338***
	시(복합도농군포함)	0.36	0.36	0.37	0.38	.067
	군	.08a	.13ab	.15b	.22c	21.130***
가구형태차원	가구원 수	2.48a	2.83b	3.13c	3.56d	86.775***
	가구형태_단독가구	.06a	.13b	.15b	.25c	32.422***
	가구형태_결손가구	0.02	0.02	0.02	0.02	.068
	가구형태_기타가구	.73a	.83b	.84b	.92c	29.722***
	저소득가구 유무	.12a	.14a	.23b	.40c	85.688***

종속변수		각 변수 평균값(오름차순)				F-value (sig)
차원	변수	하	중하	중상	상	
가구경제차원	자가유무	.55a	.58a	.65b	.66b	9.623***
	주택시세	11698.18	12681.95	13129.16	13968.29	1.893
	[가구 소득유형]					
	근로소득	61.94a	95.10b	110.54c	110.83c	72.686***
	사업 및 부업소득	48.77	50.82	59.94	70.64	3.796**
	재산소득	14.25	15.98	16.59	17.04	.201
	사적이전소득	26.81a	29.36ab	32.60ab	35.42c	3.527*
	공적이전소득	20.87a	25.33a	35.44b	36.53b	9.500***
	기타소득	22.15a	22.21a	35.98ab	42.79b	3.276*
	총생활비	25.33a	31.69b	36.02c	40.02d	78.862***
	순자산	2248.18	2362.97	2456.16	2500.73	.853
	[가구 소득비중]					
	근로소득 비중	.29a	.41b	.48c	.48c	68.362***
	사업 및 부업소득 비중	0.16	0.16	0.16	0.17	.072
	재산소득 비중	.04ab	.05ab	.05ab	.06b	3.806**
	사적이전소득 비중	.12a	.13a	.16a	.22b	19.593***
	공적이전소득 비중	.10a	.12a	.17b	.22b	43.614***
	기타소득 비중	.05ab	.05ab	.07bc	.09b	4.983**
가구의식차원	주관 최저소비	16.79a	21.49b	23.65c	25.91d	83.139***
	주관 적정소비	24.26a	29.64b	34.13c	34.95c	81.916***
	주관적 계층의식	1.96a	2.23b	2.25b	2.50c	51.495***
	[가구원 평균만족도]					
	1.건강	3.01a	3.52b	3.54b	3.83c	146.109***
	2.가족수입	2.63a	2.83b	2.85b	3.02c	30.648***
	3.주거환경	3.49a	3.52ab	3.59ab	3.60c	4.582**
	4.가족관계	3.78a	3.91b	3.96b	4.04c	24.285***
	5.직업	3.26a	3.41b	3.46bc	3.55c	25.740***
	6.사회적 친분관계	3.68a	3.77b	3.81b	3.83b	17.876***
	7.여가문화	3.08a	3.19b	3.20b	3.36c	12.462***

† $P<.1$, *$P<.05$, **$P<.01$, ***$P<.001$

* 각 잠재유형 평균값에 기재된 첨자(abc)는 Duncan사후검정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하위집단을 알려준다.

** 소득/생활비/자산의 단위는 십 만원임.

*** 흑백 인쇄시, 잠재집단 구분을 위한 색깔 및 명도는 다음과 같다.

유형1[청년-희망상류층] 유형2[노년-절망하류층] 유형3[중년-하향중상층] 유형4[장년-상향중상층]

4.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잠재유형별 예측요인의 검증

앞서 시행된 ANOVA분석에서는 각 변수들의 영향이 서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각 잠재집단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산출된 4개 잠재집단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를 통해 가구의 여러 변인들이 집단 소속에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분석은 크게 두 차원에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노년-절망하류층[유형2]'과 여타 잠재집단[유형1,3,4]들을 비교 분석한다. '노년-절망하류층'는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과 사회 중상, 상층과의 비교가 가장 화급한 작업이라고 본다. 잠재집단분석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유형은 긍정적 전망에 따라 '노년-절망하류층'< '장년-상승중상층'= '중년-하향중상층'< '청년-희망상류층'위계서열화 되어있다. 따라서 '노년-절망하류층'을 기준으로 한 다항로짓분석은 전망 불평등 정도를 확인케 해준다.

둘째, 다항로짓분석의 분석결과는 같은 집단에 대해서는 준거집단의 변화여부에 따라 부호만 바뀔 뿐 동일한 결과를 산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비교가 진행되지 않은 잔여집단들에 대한 분석 [유형1vs3] [유형1vs4] [유형3vs4]를 각기 진행하였다. 앞서 진행된 '노년-절망하류층'과의 비교가 희망의 수준에 관한 것이라면, 잔여집단들에 대한 분석은 유사한 수준의 전망을 내포한다는 점에서(특히 '장년-상승중상층'='중년-하향중상층'), 영역별 차이에 근거한 생활전망의 패턴에 대한 설명을 꾀할 수 있다.

가. '노년-절망하류층[유형2]'와 타 잠재집단[유형1, 3, 4]에 비교분석

<표 6>은 '노년-절망하류층[유형2]'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독립 및 통제변인들이 [유형1, 3, 4]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다항로짓분석이다.

먼저 긍정적 전망의 차이가 가장 큰 '노년-절망하류층[유형2]'과 '청년-희망상류층[유형1]'에 대한 분석을 살펴본다. 결과를 살펴보면, 두 잠재집단을 결정짓는 차원은 일차적으로 가구의 인적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의 승산비 exp(b)는 .926으로 연령이 1살 증가할 때마다, [유형1]에 속할 승산이 7.4%씩 감소함을 살필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가구의 평균학력이 증가할수록 [유형1]에 속할 승산이 23.4%씩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처럼 [유형1]은 젊은 세대의 부부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자녀가 아직 학령기에 처해 있어 학력 평균의 저하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는 거주지도 매우 강력한 영향변수 임을 시사한다. 군 지역 거주에 비해 서울 더미변수의 승산비는 2.89, 광역시는 2.46으로 [유형1]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흥미로운 결과는, 가구형태 및 가구경제차원은 그 어떤 변인도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반면 주관적 차원은 강한 영향을 행사한다. 즉 주관적 계층의식의 승산비는 1.478로 계층의식이 1씩 오를 때, [유형1]에 속할 승산이 1.47배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최저소비와 적정소비의 괴리는 상대적 박탈감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동조하는데(Townsend, 1979; 이상일, 2005), 두 변인들 간의 관계는 이러한 추사고를 강하게 지지한다. 주관적 최저소비의 승산비는 1.006으로 주관적 최저 소비액이 10만원씩 오를 때마다 0.6%씩 증가하는 반면, 주관적 적정소비의 승산비는 .993으로 주관적 적정소비액이 10만원씩 오를 때마다 [유형1]의 소속승산이 0.7%씩 감소한다. 추후 두 변수의 높은 상관성을 통제하는 평균화 작업 등이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두 변수의 공통 효과가 상호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부호의 방향이 달리 나타난다는 사실은 최저 소비와 적정 소비에 대한 상대적 박탈 명제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가령 적정소비로 표현되는 상대적 소비의 인식이 상대적 박탈을 강화시켜 희망을 저하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만족도에 대한 분석에서는 [유형2]와 여타 다른 [유형1, 3, 4]모두 건강이 좋을수록 미래전망을 밝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형1]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가구의 여가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 전망을 좋게 인지했지만,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해당 결과는 장세훈(2005)과 박경숙(2008)의 논의처럼, 빈곤층은 중심부의 가치로 주변부인 자신들을 바라보고 이를 벗어나려 하는데, 이것이 자신이 속한 빈곤집단에 대한 부정적 긴장과 의식을 유발한다는 논지와 궤적을 함께한다.

다음으로 '노년-절망하류층[유형2]'과 '중년-하향중상층[유형3]'에 대한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가구의 인적차원에서 두 집단은 서로 비슷한 연령대를 공유하기 때문에, 연령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고 간주할 수 있다. 반면 앞서 '청년-희망상류층'과는 달리 가구 남성비중이 '중년-하향중상층'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주지 차원에서는 서울과 광역시에 거주할수록, 생활 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더미변수들이 도시가 가져다주는 삶의 편리함과 더불어 자녀세대와의 관계, 부와 재산의 효과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단독가구형태가 [유형3]에 속할 승산비를 약 40%를 감소시키고 있었다.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좌절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바, 그러한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구 경제차원의 효과는 [유형1]처럼 그 효과가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이 $p<.1$ 수준에서 승산비있 1.001의 효과를 미치고 다. 반면 주관적 차원의 효과는 앞서 [유형1]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어 가구의 긍정적 전망에는 주관적 차원의 영향력이 지대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절망하류층[유형2]' '장년-상향중상층[유형4]'과의 비교분석이다. [유형4] 집단의 평균연령이 35세대임을 감안하면, 연령은 부적 효과를 끼칠 것임이 자명하다. 거주지는 서울 효과가 유의미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앞의 분석들과 유사한 해석을 동반한다.

다만 [유형4] 가구와의 분석결과가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보인다. 가령 저소득가구에 속할수록 $p<.1$수준에서 [유형4]에 속할 승산비가 약 0.25배 정도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유형4]의 긍정적 전망이 시기상 안정된 경제력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경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저소득 가구 유무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이 $p<.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로 다시금 뒷받침된다. 반면 [유형1과 3]에서 유의미했던 주관적 계층의식과 주관적 소비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데, 이러한 결과는 경제력이 [유형4]의 긍정적 전망의 핵심동력임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다항로짓모형의 유사설명력은 약 21%에 달했는데, 개별적 설명력 산출을 위해 각 해당변인에 대해 이항로짓분석을 다시금 실시하였다. 물론 결과의 큰 변화는 없었다. 각 모형의 설명력을 보면 '청년-희망상류층'> '장년-상향중상층'> '중년-하향중상층'으로 배치된다.

표 6. 노년-절망하류층[유형2]'와 타 잠재집단[유형1, 3, 4] 다항로짓 분석결과

준거집단: 노년-절망하류층(=0) [유형2]		청년-희망상류층 [유형1]			중년-하향중상층 [유형3]			장년-상향중상층 [유형4]		
차원	변수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가구인적 차원	constant	-3.385	1.31		-3.334***	.59		-2.680***	.66	
	가구 평균연령	-.077***	.01	.926	-.002	.00	.998	-.038***	.00	.963
	가구 남성비중	-.364	.41	.695	-.453**	.18	.636	-.239	.19	.788
	가구 평균학력	-.266**	.10	.766	.040	.04	1.041	.077	.05	1.080
	가구 기혼자비중	1.341*	.57	3.823	-.320	.23	.726	.432†	.25	1.540
	[거주지역]									
	서울	1.064**	.37	2.898	.386*	.17	1.472	.514**	.18	1.672
	광역시	.900**	.32	2.459	.488***	.14	1.629	.213	.16	1.238
	시(복합도농군포함)	.376	.32	1.457	.174	.13	1.190	.004	.15	1.004
	군	.000	.	.	.000	.	.	0	.	.
가구형태 차원	가구원 수	.198	.13	1.219	-.001	.07	.999	.118†	.07	1.125
	[가구형태]									
	단독가구	-.198	.44	.821	-.489**	.16	.613	.093	.19	1.097
	결손가구	-.457	.60	.633	-.135	.31	.874	-.175	.32	.839
	기타가구	.000	.	.	.000	.	.	0	.	.
	저소득가구 유무	.364	.31	1.439	-.061	.13	.941	-.282†	.15	.755
가구경제 차원	자가유무	.072	.21	1.075	.089	.11	1.093	-.092	.12	.912
	주택시세	.000	.00	1.000	.000†	.00	1.000	.000	.00	1.000
	[가구 소득유형]									
	근로소득	.001	.00	1.001	.001†	.00	1.001	.001†	.00	1.001
	사업 및 부업소득	.000	.00	1.000	.000	.00	1.000	.001†	.00	1.001
	재산소득	.000	.00	1.000	-.001	.00	.999	.000	.00	1.000
	사적이전소득	.001	.00	1.001	.001	.00	1.001	.001	.00	1.001
	공적이전소득	-.003	.00	.997	.001	.00	1.001	.000	.00	1.000
	기타소득	.000	.00	1.000	.000	.00	1.000	.000	.00	1.000
	총생활비	.005	.01	1.005	-.003	.00	.997	-.008†	.00	.992
	순자산	.000	.00	1.000	.000	.00	1.000	.000	.00	1.000
가구의식 차원	주관 최저소비	.006***	.00	1.006	.004***	.00	1.004	.000	.00	1.000
	주관 적정소비	-.007***	.00	.993	-.003***	.00	.997	.000	.00	1.000
	주관적 계층의식	.391**	.14	1.478	.232***	.07	1.261	.059	.07	1.060
	[가구원 평균만족도]									
	1.건강	.660***	.14	1.935	.521***	.06	1.684	.187**	.07	1.206
	2.가족수입	.217	.13	1.242	.071	.07	1.074	.062	.07	1.064
	3.주거환경	-.034	.13	.967	.042	.07	1.043	.024	.07	1.024
	4.가족관계	.054	.16	1.055	.001	.07	1.001	.030	.08	1.030
	5.직업	-.005	.16	.995	-.002	.07	.998	.017	.08	1.017
	6.사회적 친분관계	-.493*	.20	.611	-.081	.09	.922	.151	.11	1.163
	7.여가문화	.422**	.14	1.525	-.013	.06	.987	.050	.07	1.051
[binary rogistic Analysis]			n=3507			n=4127			n=3983	
-2LL Log Likelihood			1003.945			3277.784			3065.628	
Pesudo R-square(Nagelkerke)			.304			.116			.189	
[Multinomial rogistic Analysis]						n=4945				
-2LL Log Likelihood						8333.087				
Pesudo R-square(Nagelkerke)						.211				

† $P<.1$, * $P<.05$, ** $P<.01$, *** $P<.001$

나. 잔여 잠재집단 간 비교분석

지금까지는 생활 전망의 격차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었지만, 아래 <표7>에서는 잠재집단분석 결과에서 패턴의 차이를 보인 '장년-상향중상층[유형4]'와 '중년-하향중상층[유형3]'의 결과를 중심으로 중상층들 사이에서 생활 전망 영향요인의 효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청년-희망상류층[유형1]'과 '중년-하향중상층[유형3]', '장년-상향중상층[유형4]'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두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연령 변수의 효과는 두 분석에서 모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균학력도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평균연령 약 30세의 사회적 청년인 [유형1]집단에서 어린 자녀의 학력으로 인해 가구수준에서는 평균학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중년/장년의 [유형3], [유형4] 집단의 경우는 성인이 된 자녀로 인해 평균학력이 높기 때문에, 평균학력이 높을수록 해당 두 집단으로의 소속확률을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형1] vs [유형3]에서는 기혼자 비중이 승산비 5.27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유형1]의 가구가 주로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라는 안정된 가구형태를 이루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중년층의 경우 기혼자의 비중 그 자체는 높으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가구마다 기혼자 비중 변수의 변산이 크기 때문에, 두 집단의 소속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 지역에서는 [유형3]은 서울이 [유형4]는 광역시가 [유형1]로의 소속확률을 높이는데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거주지의 효과가 중상층 내에서도 생활 전망을 결정짓는 핵심변인임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유형4]와 [유형1]의 비교모형 중, 가구형태 차원에서 저소득가구 유무 변수가 [유형1] 집단으로의 소속확률을 높이고 있다(p<.1). 즉 저소득 가구일수록 [유형1]로의 소속확률을 높인다는 것으로, 이는 다소 의아스러운 결과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형4]는 재산이 어느 정도 축적된 장년층으로서, 미래 전망이나 희망은 연령으로 인해 낮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 재산의 측면에서는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소수의 저소득 가구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긍정적 전망을 지니지만, 교통과 통신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유형4]와 [유형3]과의 분석결과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앞서 본 연구자는 교통과

통신에 대한 전망차이가 스마트폰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에 대한 세대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가 이를 지지하는데, 간단히 말해 교통과 통신기술에 대한 높은 전망을 표시한 '중년-하향중상층[유형3]'은 비교적 젊은 잠재집단인 [유형4]에 진입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어려야 된다는 점에서 연령 차이가 교통/통신에 대한 긍정적 전망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이한 점으로, 주관적 의식차원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은 '중년-하향중상층'이 '장년-상향중상층'에 진입하는데 부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의식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연령이 들수록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계층의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해당 결과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향'하는 중년층과 '상향'하는 장년층의 계층이동의 관성이 포착된 결과로 보인다. 말하자면, [유형3]과 [유형4]를 가르는 기준이 경제력 보다는 주로 세대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다항로짓모형의 유사설명력은 약 21%에 달하는데, 개별적 설명력 산출을 위해 각 해당변인에 대해 개별적인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해당 모형설명력을 <표 7> 하단에 기재하였다.

표 7. 잔여 잠재집단 별 다항로짓 분석결과

잔여잠재집단 간 분석		[유형1] vs [유형3] ([청년-희망상류층] vs [중년-하향중상층(=0)])			[유형1] vs [유형4] ([청년-희망상류층] vs [장년-상향중상층(=0)])			[유형3] vs [유형4] ([중년-하향중상층] vs [장년-상향중상층(=0)])		
차원	변수	b	S.E	exp(b)	b	S.E	exp(b)	b	S.E	exp(b)
가구인적 차원	constant	-.050	1.37		-.705	1.39		.655	0.80	
	가구 평균연령	-.075***	0.01	.928	-.039***	.01	.962	-.036***	0.01	.964
	가구 남성비중	.089	0.42	1.093	-.125	.43	.882	.214	0.23	1.239
	가구 평균학력	-.306**	0.10	.736	-.343***	.10	.710	.037	0.06	1.038
	가구 기혼자비중	1.661**	0.59	5.265	.909	.59	2.482	.752*	0.30	2.121
	[거주지역]									
	서울	.678†	0.39	1.969	.550	.39	1.734	.128	0.22	1.136
	광역시	.412	0.34	1.509	.686*	.34	1.987	-.275	0.19	.760
	시(복합도농군포함)	.202	0.33	1.224	.372	.34	1.451	-.170	0.18	.844
	군	0b	.	.	0	.	.	0b	.	.
가구형태 차원	가구원 수	.198	0.13	1.219	.080	.13	1.083	.119	0.08	1.126
	[가구형태]									
	단독가구	.291	0.45	1.338	-.291	.46	.748	.582**	0.22	1.789
	결손가구	-.323	0.64	.724	-.282	.64	.754	-.040	0.39	.960
	기타가구	0b	.	.	0	.	.	0b	.	.
	저소득가구 유무	.425	0.32	1.529	.645†	.33	1.906	-.220	0.18	.802
가구경제 차원	자가유무	-.017	0.22	.983	.165	.22	1.179	-.182	0.14	.834
	주택시세	.000	0.00	1.000	.000	.00	1.000	.000	0.00	1.000
	[가구 소득유형]									
	근로소득	-.001	0.00	.999	-.001	.00	.999	.000	0.00	1.000
	사업 및 부업소득	.000	0.00	1.000	.000	.00	1.000	.001†	0.00	1.001
	재산소득	.001	0.00	1.001	-.001	.00	.999	.002	0.00	1.002
	사적이전소득	.000	0.00	1.000	.000	.00	1.000	.000	0.00	1.000
	공적이전소득	-.004	0.00	.996	-.003	.00	.997	-.001	0.00	.999
	기타소득	.001	0.00	1.001	.000	.00	1.000	.000	0.00	1.000
	총생활비	.008	0.01	1.008	.013	.01	1.013	-.005	0.01	.995
	순자산	.000	0.00	1.000	.000	.00	1.000	.000	0.00	1.000
가구의식 차원	주관 최저소비	.002	0.00	1.002	.006***	.00	1.006	-.004***	0.00	.996
	주관 적정소비	-.004*	0.00	.996	-.007***	.00	.993	.004***	0.00	1.004
	주관적 계층의식	.159	0.14	1.172	.332***	.14	1.394	-.173*	0.09	.841
	[가구원 평균만족도]									
	1.건강	.139	0.15	1.149	.473	.15	1.604	-.334***	0.08	.716
	2.가족수입	.145	0.14	1.156	.155	.14	1.168	-.010	0.09	.990
	3.주거환경	-.076	0.14	.927	-.057	.14	.944	-.018	0.08	.982
	4.가족관계	.053	0.17	1.054	.024	.17	1.024	.029	0.10	1.029
	5.직업	-.003	0.16	.997	-.022	.17	.978	.019	0.10	1.019
	6.사회적 친분관계	-.413*	0.21	.662	-.644**	.21	.525	.231†	0.12	1.260
	7.여가문화	.435**	0.14	1.545	.372***	.14	1.450	.063	0.08	1.065
[binary rogistic Analysis]		n=962			n=818			n=1438		
-2LL Log Likelihood		712.164			719.219			1824.558		
Pesudo R-square(Nagelkerke)		.292			.212			.136		
[Multinomial rogistic Analysis]										
-2LL Log Likelihood		8532.234								
Pesudo R-square(Nagelkerke)		.214								

† $P<.1$, * $P<.05$, ** $P<.01$, *** $P<.001$

5. 객관적 사회구조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매개적 관계

이상의 분석에서는 잠재집단에 대한 여러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결과를 놓고 볼 때 가구의 긍정적 전망의 유형이나, 특히 그 강도에 대해 가구의 객관적 차원은 효과가 분명치 않았던 반면 주관적 차원은 명확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가구의 긍정적 전망, 즉 희망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의 객관적 상황의 직접적 효과보다 객관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독, 인지 혹은 느낌이 보다 유의미한 설명변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층의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객관적 상황이 계층의식에 높은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고한다(김병조, 2000; 이병훈, 윤정향, 2006; 조동기, 2006). 따라서 본 연구진은 객관적 계급지위는 주관적 계급 인지라는 과정을 거쳐 가구의 긍정적 전망에 개입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을 실증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추가적으로 잠재집단 소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주관적 차원의 변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는 주관적 적정소비(금액)나 주관적 계층의식이 고려되었다. 또 각 영역에 대한 가구원의 평균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는데, 단 하나의 만족도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최적임이 확인되어 모든 영역을 평균화한 생활만족도 단일요인이 고려되었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과 같이 위계적인 사회구조는 가구의 주관적 의식 및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가구 유무나 소득유형의 경제적 차원의 영향이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가구의 긍정적 전망에 대한 객관적 사회불평등은 불평등한 사회현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매개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 다시 말해 주관적·의식적 여과 과정을 거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켜 준다.

표 8. 주관적 의식차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차원	변수	주관적 적정소비			주관적 계층의식			생활만족도		
		b	S.E	β	b	S.E	β	b	S.E	β
가구인적차원	constant	27.89*	13.55		1.70***	.10		3.22***	.06	
	가구 평균연령	-.59***	.13	-.07	.00***	.00	-.11	.00***	.00	-.13
	가구 남성비중	-6.14	5.09	-.01	-.09*	.04	-.03	-.12***	.02	-.07
	가구 평균학력	9.22***	1.31	.07	.03***	.01	.05	.03***	.01	.07
	가구 기혼자비중	9.73	7.21	.02	.23***	.06	.08	.14***	.03	.08
	[거주지역]									
	서울	3.91	4.80	.01	-.19***	.04	-.08	-.13***	.02	-.10
	광역시	-2.42	4.02	-.01	-.13***	.03	-.07	-.03†	.02	-.03
	시(복합도농군포함)	-2.15	3.76	-.01	-.06*	.03	-.03	-.03	.02	-.03
	군									
가구형태차원	가구원 수	31.67***	2.00	.23	-.05***	.02	-.08	-.02*	.01	-.06
	[가구형태]									
	단독가구	2.10	4.53	.00	-.02	.03	-.01	.05*	.02	.04
	결손가구	7.42	9.30	.01	-.14†	.07	-.02	-.04	.04	-.01
	기타가구									
	저소득가구 유무	-12.11***	3.65	-.03	-.32***	.03	-.18	-.22***	.02	-.22
가구경제차원	자가유무	-2.65	3.21	-.01	.29	.02	.16	.12***	.01	.12
	주택시세	.00***	.00	.04	.00	.00	.02	.00	.00	.02
	[가구 소득유형]									
	근로소득	.07***	.02	.04	.0012***	.0002	.14	.0008***	.00	.15
	사업 및 부업소득	.05***	.01	.04	.0003***	.0001	.05	.0001*	.00	.04
	재산소득	-.05†	.03	-.02	.0014***	.0002	.09	.0002	.00	.02
	사적이전소득	-.01	.03	.00	.0002	.0002	.01	.0003**	.00	.04
	공적이전소득	-.08***	.02	-.03	.0005**	.0002	.04	.0002	.00	.02
	기타소득	-.07***	.01	-.05	.0001	.0001	.00	-.00004	.00	-.01
	총생활비	4.90***	.11	.58	.0071***	.0009	.18	.0033***	.00	.15
	순자산	.00	.00	.02	.00004***	.00	.18	.00001***	.00	.0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n=4944			n=4944			n=4944		
F-value		721.089***			138.747***			91.603***		
R-square(adhusted R-sqaure)		.755(.754)			.372(.369)			.281(.278)		

† $P<.1$,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심화되어가는 양극화의 파고 속에서 "한국인 가구원의 생활 전망이 어떠한 방식과 양태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가구수준의 변인들과 함께, 희망을 측정해낼 수 있는 가구생활의 긍정적 전망 변인을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생활의 긍정적 전망의 정도, 그리고 각 영역의 이질적인 분포에 따라 4개 잠재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거기에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해 각 잠재집단을 가구인구사회/가구형태/경제적 특성에 따라 "청년-희망상류층", "중년-하향중상층", "장년-상향중상층", "노년-절망하류층"으로 특성화하였다.

이 때 일차적으로 주시되어야 할 점은 응답자의 65% 정도가 '노년-절망하류층'에 속해있다는 사실로, 해당 가구원들은 사회경제적 위계에서나 미래적 삶에 대한 전망에서 이중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잠재집단분석 결과에서 주목을 요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가구생활에 대한 전망이 생애주기와 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상향'이동하는 장년-상향중상층이 나이가 듦에 따라 '중년-하향중상층'으로 변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장노년-절망하류층'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고진감래(苦盡甘來)와는 상반되는 '감진고래(甘盡苦來)'격의 암울한 상태로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풍족한 경제력을 향유한 '희망상류층'은 그 평균연령이 31세에 불과한 약관이라는 사실은 한국사회가 세습자본주의적 성향을 띄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징표라는 점, 더구나 그 비율이 전체의 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소수 상류층 대 다수 하류층의 피라밋 유형을 넘어 극소수 특권층과 대다수 빈곤층의 첨탑 유형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양적 불균등에 의한 상하층 계급관계를 질적 단절을 함축하는 상하류 관계로 전환시켜 생활기회(life chance)를 넘어선 생활양식(lifestyle)의 격차를 유발, 가용 자원의 배분을 중심으로 한 이해 갈등(interest conflict)이 타자의식에 기반한 정체성 갈등(identity conflict)으로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계급적 차이도 위계적 형태에서 경계적 형태로 바뀌며, 사회적 고통에 대한 체험마저 인과적 양식이 아닌 전가적 방식으로 풀이됨으로써 미래적 삶에 대한 희망격차의 계급적 차이를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항로짓회귀분석을 통해 잠재유형 집단 소속에 대한 예측요인에서 객관적-물질적 자원에 관한 변인보다 주관적-의식적 변인이 보다 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한국인이 역경 속에서도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고무적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계층의식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그것을 객관적 구조의 반영이거나 부수적 현상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미래적 삶에 대한 전망이 단순히 객관적 사회구조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주관적 의식에 의해 능동적으로 해석되거나 구성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계급적 단절을 획책하는 양극화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정신적 원천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개인에게 물적 자원이 많고 적음은 불평등의 정도만을 나타낼 뿐이다. 하지만 있고 없음의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로 작용한다. 미래에 대한 꿈은 현실적 생활체험에서 배태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관념의 존재제약성(Seinverbundenheit des Wissens)을 전제로 하는 지식사회학적 논법에 따르면, 꿈은 삶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상을 현실로"라는 항간의 언표로부터 추론할 수 있듯, 보다 나은 삶을 향한 꿈이 세상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영령이 없는 좀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꿈꿀 수 있는 정신을 견지하는 한 불평등한 사회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단서를 부분적으로나마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된다.

사회불평등에 관한 지난날 연구에서는 구조적 변수가 의식적 변수보다 우대되어 왔다.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객관적 측정이 용이한 전자에 비해 주관적 성격이 농후한 후자가 경험적 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계량화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불평등 해소의 궁극적 대안인 사회통합 과정에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은 많은 연구물들에 의해 거듭 입증되어 왔다. 복지패널 자료에 근거해 주관적 불평등의 효과를 객관적 변인과의 연관성 하에서 실증적으로 포착해보고자 한 본 연구는 구조편향적 사회불평등 연구의 한계를 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소정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문조. (2008). **한국사회의 양극화**. 파주: 집문당.

김문조. (2013). 경제민주화의 사회이론적 조명. **한국사회의 창의적 디자인 모색 발표문 자료집**. 2013. 5. 10. 서울: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pp.99-124.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2), pp.241-268.

김찬호. (2014). **모멸감**. 서울: 문학과 지성사.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pp.82-112.

구해근. (1991). 한국 중간계급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점. 서울대사회학연구회(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서울: 다산출판사.

구해근. (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서울: 창작과 비평사.

금현섭, 백승주. (2011). 사회보험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변동.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3), pp.61-86.

남은영. (2009). 외환위기 이후 계층의 양극화: 변화된 일상과 소비생활. **한국조사연구학회, 10**(1), pp.1-32

남상호, 권순현. (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pp.3-32.

반정호, 김경희. (2013). 모자가구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 **노동정책연구, 13**(1), pp.33-69.

반정호. (2011). 가구구성방식의 다양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8**(1), pp.85-111.

박경숙. (2008).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 **한국사회학, 42**(1), pp.96-129.

박병현, 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 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5), pp.185-219.

서광민. (2009). 주관적 계층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소득·교육수준·직업·소득 만족도·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9년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자료집**, pp.911-921.

신광영. (2006). 중산층 살리기는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해법인가?.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포럼 발표문 자료집,** pp.19-28.

신광영. (2013). 2000년대 계급/계층연구 현황과 과제. **경제와 사회, 100**, pp.114-137.

안치민. (1993). 한국사회의 계급구조화 연구. **한국사회학, 26**(1), pp.59-82.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 (2010). **희망격차사회** (최기성, 역). 서울: 아침. (원서출판 2004).

이병훈, 윤정향. (2006).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70**, pp.111-140.

이병훈, 신재열. (2009). 기혼 남녀의 사회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전망, 76**, pp.205-232.

이상일. (2005). 상대적 박탈의 논리와 소득의 차원을 비교적으로 적용한 빈곤선의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pp.185-224.

이성균. (2008).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노동정책연구, 8**(4), pp.119-146.

장상수. (1996). 한국 사회에서의 주관적 계층위치. **사회와 역사, 49**, pp.180-212.

장세훈. (2005). 현 단계 도시빈곤의 지속과 변모. **경제와 사회, 66**, pp.95-125.

장미혜. (2002).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한국사회학, 36**(4), pp.223-251.

조동기. (2006). 중산층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인구학, 29**(3), pp.89-109.

정수남. (2000). 공포, 개인화, 그리고 축소된 주체: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일상성. **정신문화연구, 33**(4), pp.329-357.

정수남. (2009). 계급분노와 저항의 감정적 동학: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 9**(3), pp.243-281.

최효미. (2008). 중산층의 사회계층 소속감에 대한 분석. **노동리뷰, 46**, pp.73-84.

Argyle, M. (1994). *The Psychology of Social Class*. London: Routledge.

Crompton, R. (1998). *Class and Stratification*. Cambridge: Polity Press.

Collins, L. M., & Lanza, S. T.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Hoboken: Wiley.

Giddens, A. (1973).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Stroudsburg, PA: Hutchinson.

Harrington, M. (1997). *The Other America :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Scribner.

Jackman, M., & Jackman, R. (1973). An Interpret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Social Statu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5), pp.569-582.

Jackman, M., & Jackman, R. (1985). *Class Awareness in the United States.* Los Angel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undberg, J., & Kristenson, M. (2008). Is Subjective Status Influenced by Psychosocial Fac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3), pp.375-390.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Los Angel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Thompson, E. P. (1966).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New York: Vintage.

Muthén, B. (2001).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In Marcoulides, G. A. & Schumacker, R. E. (eds.),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p.1-33).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uthén. B. (2002). Beyond SEM: General Latent Variable Modeling. *Behaviormetrika, 29*(1), pp.81-117.

Nagin. D. (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2), pp.139-157.

Pierson. J. (2001). *Tackling Social Exclusion.* London: Routledge.

Vanneman. R., & Cannon, L. (1987). *The American Perception of Class*. Phila: Temple University Press.

이왕원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사회심리/의식, 교육과 노동시장, 기업세계의 불평등, 통계 방법론 등이다.
(E-mail: sanha25c@korea.ac.kr)

김문조는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이론사회학, 문화사회학. 현대사회사상, 과학기술사회론 등이다. (E-mail: muncho@korea.ac.kr)

A Study of the Life Prospect of Koreans:
Focusing on Its Level, Pattern and Predictive Factors

Lee, Wang Won
(Korea University)

Kim, Mun Cho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s, pattern and factors of life prospect of Korean household members. First, latent class analysis and one-way ANOVA on "Outlook of 10 Areas of Household Life One Year Later" in the 7th Year Korea Welfare Panel Study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conducted in order to explore the existence and patterns of latent class in terms of life outlook. Next, multinominal logit analysis was followed to analyze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class membership. Th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the subjective predictive factors only in order to infer relationships between objective inequality and subjective inequalit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s and types of the outlook of household life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secondly, regarding positive and negative levels of life outlook, residence place and subjective-conscious factor give more influence than objective-physical resources, and regarding types of life outlook, subjective factor,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s and satisfaction with leisure culture gave strong influence. However, the subjective variables affecting a latent class were greatly influenced by objective, social and economic status. Thus,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turns out to play a significant interpretive role of objective social inequality.

Keywords: Korea, Inequality, Polarization, Class Consciousness, Life Prospect, Latent Class Analysis